

<자료요약>

파일 번호	자료명	내용(재생시간)	재생 시간 (분)	발표자/토론자/사회	단행본 페이지 (pp)	비고
1	제1주제, 제2주제 발표	<p>*개회사(~20:00) - 세미나의 주제(~12:45) - 세미나의 구성 및 진행방법 소개(12:46~20:00)</p>	1:13:07	이만갑 (서울대 사회학과)	7~9	
		<p>*주제발표1-사회구조적 격차(~52:45) - 구조적 측면의 지표(가족, 인구, 직업, 계층적 측면)를 통계자료를 통해 비교 -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지리외향적인 측면일 뿐 삶의 태도나 인간관계의 측면</p>		김채윤 (서울대 사회학과)	12~23	
		<p>*주제발표2-교육적 문화적 격차(~끝) - 격차의 사실조사적인 측면보다 격차의 인간발달, 사회발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함. - 문화실조(cultural deprivation), 문화심체지역(cultural depressed area) 문제에 관심을 둬.</p>		정범모 (서울대 사범대학)	46~54	중간에 잘림
2	제1주제에 대한 제1분과토의 : 사회구조적 격차의 원인	<p>*자기소개(~06:30) *제1과제에 대한 제1분과 토의(~16:48) - 논의방법 결정: 가족구조, 직업, 계층(계급구조)별 논의 or 포괄적 논의 -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사회, 태도, 가치관 등도 고려하여 논의</p>	1:19:40	사회: 장위돈 (서울대 정치학과) 토론: 김채윤, 윤종주, 박용현, 오갑환, 황인정, 박진환, 김태길	23~33	-음질불량 (~3:45)(16:48~끝) -들리는 부분만 내용요약
3	제1주제, 제2주제에 대한 종합토의	<p>*제1주제에 대한 제1분과 토의내용 보고: 사회구조적 차이의 원인(~7:10)</p>	1:16:40	오갑환 (서울대 사회학과)	38~40	
		<p>*제1주제에 대한 제2분과 토의내용 보고: 사회구조적 차이의 영향(~11:56) - 양적, 질적격차가 모두 존재하나 양적차이가 더욱 큼. - 가족, 직업, 계층, 가치 4가지로 나누어 논의</p>		김규택 (성균관대 정치학과)	40	
		<p>* 제1주제에 대한 종합토의(~54:28) - 김채윤의 농촌과 도시와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/답변 및 논의 - 김채윤의 농민과 도시인의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/답변 - 농민의 이해관계, political 성향의 특성에 대한 논의 -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원인은 직업, 교육, 문화시설 등의 차이에 있음. cf) 이만갑 1968년 서울시로의 이주현상 조사 - 농촌과 도시의 aspiration의 차이: 농촌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driving force가 무엇인지 찾아야 함.</p>		사회: 김태길 (서울대 윤리학과) 토론: 문승규, 김채윤, 박진환, 김태길, 이만갑, 유시중, 이장현, 정범모, 최흥기	40~43	
<p>* 제2주제에 대한 제1분과 토의내용 보고: 교육문화적 격차의 원인(~1:01:27) - 도시의 구조적 특색: 접촉 증가 → 생산성 증가 → 직업 증가 - 공업화/도시/중앙 중심의 결정 과정</p>	김재진 (경북대 경제학과)	67				

파일 번호	자료명	내용(재생시간)	재생 시간 (분)	발표자/토론자/사회	단행본 페이지 (pp)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2주제에 대한 제2분과 토의내용 보고: 교육문화적 격차의 영향 (~1:06:29) - 가정환경의 차이, 지역사회환경의 차이, 학교환경의 차이가 존재 - 환경적 조건의 차이는 있으나 정신적 차이는 없는것으로 생각됨. 		박용현 (서울대 교육심리학과)	67~68	중간에 잘림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2주제에 대한 종합토의(~끝) - 공업화된 국가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과정을 도외시 하고 결과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는 문제점 - 격차의 national level, local level에서의 차이 - 농촌의 낮은 aspiration의 문제제기/한 지역 사례가 아닌 nation 단위로 이야기 하는 문제점 		사회: 김태길 (서울대 윤리학과) 토론: 정범모, 장위돈, 황인정, 차기벽, 윤종주, 박진환, 유시중, 차병권, 문승규, 박용현, 김재진, 한기춘	68~71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패널토의 소개(9:20~35:14) - 10분간 발표_3명의 패널의 논평 - 패널리스트 소개: 함기춘, 장위돈, 차병권 		이한빈 (서울대 행정학과)	-	
4	패널토의_발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발표1(~35:15) - 농업과 공업부문에서의 차이의 존재는 추구해야할 당연한 방향 -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소득차이는 존재하나 개선되는 추세임. - 지역간 공업발전 정도의 차이: 경인과 영남지역 중심/호남 뒤떨어짐. - 산업에서 농업의 낙후는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측면에서의 낙후 - 농업의 발전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업의 발전도 뒤떨어질 것임(농업부문의 식량 공급처와 공업부문의 시장제공의 역할) - 발전전략은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수특정지역 선정하여 집중적 개발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바람직 함. 	1:15:50	이희일 (경제기획원 기획국장)	110 ~112	통계자료를 통한 설명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발표2(~56:00) 		Thomas F. Olmsted (USAID)	112 ~116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발표3(~1:15:50) - 통계적 수치가 아닌 가치판단에 입각한 코멘트 제시 - 구매력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dualism - 국제분업에 입각한 경제정책수립의 필요성 - 농업에 있어서의 질적변동 필요: 관개, 비료, 농업기술실험, 고가(인플레이션)문제, infra-structure를 개선함으로써 자급자족/주곡중심에서의 상품시장 중심체제로 변동 		이덕수 (농어촌개발공사 이사)	117 ~119	중간에 잘림

파일 번호	자료명	내용(재생시간)	재생 시간 (분)	발표자/토론자/사회	단행본 페이지 (pp)	비고
5	패널토의_논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패널논평 1(~11:34) - 농업과 공업간의 격차가 불가피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될 수 있음. - 농촌내, 도시내 격차의 문제도 고려해야 함. - 지역간 공업발전의 차(경인, 영남/호남)-집중적 투자의 필요 강조. - 경제가 우위인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함. - 어느정도의 발전단계에서 어떤 자원을 집중하는가 등 계획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 - 장기적인 전망에서 국가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임. 	47:25	장위돈 (서울대 정치학과)	119 ~ 123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패널논평 2(~17:40) - 소득극대화를 추구할 때 분배의 문제: infra struture 재분배 문제 가장 중요 - 개발초기에 infra struture가 갖추어 져야 발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- 소득중대사업이 수출을 증대를 전제로 할 때, 1차상품 가격하락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- 고가정책 - 조세정책, infra strutue, 생산비 절감 등도 고려가능 		차병권 (서울대 경제학과)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발표자 답변_이희일(~25:08) - 지역간 공업발전 문제는 거점개발 방식이 바람직함. - 경제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그때그때의 목적이 있어야 함. - 물가는 성장과 동시에 적정선 유지가 바람직함. * 발표자 답변_Olm sted(~31:50) - political question * 발표자 답변_이덕수(~35:04) - 국제분업체제하 농업분야 축적의 배분 - 고가문제 * 프론트질문/답변(~끝) - 경제성장 속 불신기업 문제 - 호남에서 풍년이 나면 섬유를 사러 서울로 가나 대구로 가나 -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regional이 아니라 좀 더 작은 단위(rural)의 고려 필요 		이희일 Thomas F. Olm sted 이덕수 외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역할배분(~3:26) * 박진환의 발표요약(~6:50) - 해방전까지 도시와 농촌의 격차라는 개념은 없었음. - 60년대 공업화의 강조가 도시와 농촌 격차 발생(특정 지역간 차이 대두) 	사회자: 장위돈 (서울대 정치학과)					

파일 번호	자료명	내용(재생시간)	재생 시간 (분)	발표자/토론자/사회	단행본 페이지 (pp)	비고
6	제3주제에 대한 제1분과 토의 : 경제적 격차의 원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승윤의 논의(~ 19:12) - 소득의 문제 고려요소:가격의 차이(농산물과 공산물), 생산성의 격차, 인구의 증가율(인구의 유출, 인구의 흡수) - 가격정책: 저가격 정책, 저임금 정책(농가희생하여 공업자금 형성) - 생산성: 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님(흉년이면 수입해서 공급) - 공업에서의 농촌인구의 흡수력: 공업의 여력이 아직 부족 - 즉, 어느 요인으로 보든지 농촌의 소득은 떨어지게 되어있음. -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농촌과 도시의 격차의 문제를 논의해야 함(농촌의 소득은 도시의 2/3 정도) 	29:52	이승윤 (서강대 경제학과)	87~93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이승윤의 발표에 대한 토론(~끝) - 농촌 도시간 소득액 논쟁 - 농촌인구의 상대적, 절대적 인구 감소 여부 - 농촌인구의 수가 줄어들었을 때 농촌의 소득은 과연 증가할 것인가(토지에 대한 인구수의 감소) - 농촌산업 특성의 이해 필요 		황인정, 윤종주, 왕인근, 오갑환, 김채윤, 박용현, 이승윤		
7	제3주제에 대한 제2분과 토의 : 경제적 격차의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역할배분(~3:00) * 경제적 영향 논의(~45:10) -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도시내, 농촌내 격차도 중요 - 농촌발전을 위한 국가/민간 자본의 유치가 필요 - 농촌 인구감소의 원인 ex) 이리, 경주, 전주, 군산 - human, income, hauman/non-hauman 나누어서 논의할 것을 제안 - 농촌인구이동의 문제는 산업간의 이동의 문제라기 보다 지역간의 이동의 문제로 취급 - 인구이동→ 경제격차 vs 경제격차 → 인구이동: 상호작용으로 격차를 심화 - 농촌과 도시의 격차의 문제는 소득의 격차와 human factor가 중요 -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여 수입이 생기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, 남아있는 식구들의 식량을 늘리는 양상으로 나타남. - 농업의 수입이 낮아, 공산품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(45:10). 	52:00	사회: 김재진 (경북대 경제학과) 토론: 유시중, 박진환, 문승규, 한기춘, 차병권, 차기벽, 최홍기	93~99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political/social 및 교육적 측면에서의 영향(~52:00) - 농민의 정치인식: 농촌은 집권정당의 표발/선거분석 -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한 농촌 투자의 적정선 - 교육은 격차를 줄이는 해결책 				

파일 번호	자료명	내용(재생시간)	재생 시간 (분)	발표자/토론자/사회	단행본 페이지 (pp)	비고
8	제3주제에 대한 전체토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오전 논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토의(~15:40) * 제1분과 보고: (~21: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농업과 공업과의 산업적 격차와 비슷 - 농업과 공업의 소득의 격차가 있기 마련: 농업부문은 일인당소득의 2/3 - 소득격차의 원인: 가정, 생산기술 무관심, 인구압력 - 가정요인: 정부의 저곡가정책으로 농업 희생, 공업 발전 - 생산성 향상의 기술의 요인: 관개, infra structure 등한시 - 인구압력: 기술혁신적 공업화, 인구고용을 못해 토지에 대한 압력이 강화 - 즉, 농업의 infra structure 투자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자에 대한 질적교육 및 장비지원 필요 	51:35	<p>사회:차기벽 (성균관대 정치학과) 발표: 왕인근 (서울대 농촌사회학)</p>	99 ~100	"오전 논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토의" 영어로 진행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2분과 보고(~27:2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격차의 영향: 농촌의 인구의 지방도시/대도시로의 이동, 양적이동만이 아니라 질적이동 - 농촌인구의 이동의 영향: 소득격차 증가 -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의 행동에의 영향: 잉여 소득을 공산품시장이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음. → 도시 공업 발전 저해(농촌의 시장 수요 보완성이 결핍) - 농촌의 인구가 유출되지만, 자본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입되지도 않음. - 농민 정치적 성향에의 영향: 농촌은 집권당의 표밭이 될 가능성 - 사회안정 및 통합에 영향 - 농촌의 교육 개발 필요: 농촌교육을 이대로 두면 더 심각해 질 가능성이 존 		<p>김재진 (경북대 경제학과)</p>	100 ~101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제 2분과에서 제 1분과 논평(~38:46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곡가 정책이 focus: 가능성과 한계점을 언급해 주어야 함. - 소득의 차이는 가격정책, 양곡의 생산량, 농촌의 인구(일인당 소득) 이 세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-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곡물의 가격유지는 필요 - 명목가격보다 실질가격의 상승이 농가에 영향: 실질가격에 준하는 농가정책 필요 - 생산-가격-인구에 비해 토지부족 - 농촌 인구이동의 문제: 도시에의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인구의 이동이 산업간의 이동이 아니라 도시화와 동일시 		<p>이승윤, 한기춘, 황인정, 박진환</p>	101 ~102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1분과에서 제2분과 논평(~44:2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가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에도 영향을 줌. - 격차는 중앙집권화를 촉진 - 행동/태도의 차이는 소통의 차이를 가져와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침. - 교육의 차이가 social mobility의 격차에 영향 - 소득의 격차가 가족구조에 영향 				

파일 번호	자료명	내용(재생시간)	재생 시간 (분)	발표자/토론자/사회	단행본 페이지 (pp)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논의(~51:3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문제에 대한 다각적 분야에서의 관심이 필요 - 보이지 않는 community stability, political stability, social order 등도 고려 - 공업화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농업에 보다 많은 고려를 해야할 시기 				
9	종합토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방법(~2: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, 2, 3 주제를 다 같이 논의 -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/실제정책을 위한 코멘트를 해주기 바람. 	25:10	이만갑 (서울대 사회학과)	124 ~127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1분과(~7:10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량화하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: 한국 도시와 농촌의 실제적 제약이 아니라 바라는 수준에서 격차를 논한점 - 국가적 목적의 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위계에 대한 합의점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 		장위돈 (서울대 정치학과)	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제2분과(~12:3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사회문제/획기적인 움직임 - 상아탑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학자들의 시각이 가지는 bias가 있을 수 있음. - 타학문(정치학, 경제학)과의 논의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음. - low income과 povety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 -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논의가 필요 - 농민들이 기술 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을 통해 만들어야 함. - 정책가들이 구체적인 policy를 위해서는 basic study를 해야함. - 논의를 지금의 social structure/education/economy 순서에서 economy를 먼저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임. 		문승규 (전북대 사회학과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논의(~끝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와 농촌의 이상화의 문제 - 도시내부의 격차도 농촌/도시 격차보다 더 심함 		황인정, 김채윤	중간에 잘림			

*제1주제: 사회문화적 격차, 제2주제: 교육문화적 격차, 제3주제: 경제적 격차

<세미나 참석자 명단>

제 1분과	김채운	(서울대학교: 사회학)
	김태길	(서울대학교: 윤리학)
	박용현	(서울대학교: 교육심리학)
	박진환	(서울대학교: 농업경제학)
	오갑환	(서울대학교: 사회학)
	윤종주	(서울여자대학: 사회학)
	이승윤	(서강대학교: 경제학)
	장위돈	(서울대학교: 정치학)
	황인정	(서울대학교: 행정학)
	왕인근	(서울대학교: 농촌사회학)

제2분과	김규택	(성균관대학교: 정치학)
	김재진	(경북대학교: 경제학)
	남재희	(조선일보사: 논설위원)
	문승규	(진북대학교: 사회학)
	유시중	(경북대학교: 사회학)
	정범모	(서울대학교: 교육심리학)
	이장현	(이화여자대학교: 사회학)
	차기벽	(성균관대학교: 정치학)
	차병권	(서울대학교: 경제학)
	최홍기	(서울대학교: 사회학)
	한기춘	(연세대학교: 경제학)

패널토의 참가자	이한빈	(서울대학교: 행정학)
	이덕수	(농어촌개발공사: 이사)
	이희일	(경제기획원: 기획국장)
	Thomas F. Olmsted	(USAID)

특별강연	Bert F. Hoselitz	(Chicago 대학: 경제학)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회의진행	이만갑	(서울대학교: 사회학)
------	-----	--------------